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11월 11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(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)에 지하철역의 만자 및 반유대주의 그라피티에 대한 수사 지원 지시**

"오늘 일찍, 반유대주의 그라피티와 만자가 103번가(103rd Street) 지하철역 벽에 낙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것은 유대인 지역사회를 겨냥한 [새로운 사건](#)이며, 저는 두려움과 분열을 심어주는 사악한 행위에 엄청난 혐오를 느낍니다.

이 사건을 겪은 후, 저는 뉴욕이 유대인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며, 이 겁쟁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. 저는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(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)에 뉴욕시 경찰청(New York Police Department, NYPD)을 도와 이 어리석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합니다.

이 저속하고 혐오를 뿌리로 한 수사학은 뉴욕 주민의 가치와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, 우리는 계속해서 뉴욕주와 미국을 중독시키는 증오라는 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."

###

<https://twitter.com/nypdhatecrimes/status/1193924463886323714?s=11>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